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3, No. 2, 2011. 5, pp. 155-177

질적 연구의 타당도 담론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주관성과 사회성의 긴장을 중심으로 -

김 경 희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김 기 덕
(순천향대학교)++
박 지 영
(상지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질 개념과 질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질적 연구의 타당도(validity)와 관련된 기존의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목적의 달성은 크게 두 가지 연구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다양한 질적 연구의 접근들과 모학문(parents disciplines)의 보편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철학의 존재론과 인식론을 통해 질 개념과 질적 인식의 본성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를 토대로 하여 질적 연구의 본성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타당도 담론의 의미와 방향을 기존의 타당도 논의들을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존재론과 인식론을 통해 살펴본 질은 사물의 본질에 대한 범주로써 인식대상인 실재의 무엇임(what-ness)으로 규정되며 내재적으로 주관적인 질적 인식은 인식 내용의 확인과 표현의 과정에서 사회성과 긴장관계를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질 개념과 질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살펴본 타당도 기준에 관한 기존의 담론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첫째, 무엇보다 타당도 논의가 질적 연구의 본성인 주관성을 확보하고 구현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양적연구와 구별되는 스스로의 기준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와 같은 질적 인식의 주관성이 인식의 내용확인과 교류 그리고 표현의 과정에서 주관성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사회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질 개념, 질적 인식, 주관성과 사회성, 질적 연구 타당도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질 개념과 질적 인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질적 연구의 타당도(validity)와 관련된 기존의 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질적 연구의 적절한 수행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인 타당도가 '질적' 연구의 본질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과 내용으로 모색되어야 할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타당도 개념을 중심으로 질적 연구의 질(quality of qualitative research)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해 보인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의 확인은 연구자가 자신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적절하게 연구하였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으로써(Seale, 2002; 김영천, 2006), 질적 연구의 두 가지 핵심적 특성인 '질적 본성'과 '연구로서의 엄격성'을 적절하게 통합할 수 있는 개념도구이기 때문이다(Wittemore, Chase, and Mandle, 2001; Davis and Dodd, 2002).

그렇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타당도에 대한 논의들이 질적 연구의 본성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탐구 없이 진행되었다는 것이 본 연구의 문제제기이며 따라서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질적 연구의 존재 특성에 보다 부합하게, 즉 다시 말해 '질적 본성'에 충실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제기의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아울러 적절한 해답의 모색 전략을 다음의 두 가지 접근방향을 중심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방향은 타당도 기준을 논의할 때 질적 연구의 '질적 본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충분히 담겨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적 연구의 본질과 특성을 논의하는 기존의 문헌들을 보면 '질이란 무엇이며 이는 과연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가'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보다는 질적 연구의 역사를 일반적으로 소개하거나 질적 연구의 특성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따라서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자연주의적, 주관적, 총체적, 의미지향적 등과 같은 질적 연구의 특성에 대해서는 꽤 익숙하지만 이러한 특성들이 왜 질적인지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없었고 그 결과 이러한 질적 특성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타당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탐색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질적 연구를 논의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양(quanta)과 구별되는 질(qualia)의 존재 특성 그 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를 형성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Schweder, 1996)은 타당도 논의와 관련해서도 타당하리라 본다.

두 번째 방향은 다양한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이나 모학문(parent disciplines)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된 지적 토대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타당도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다. 기존의 타당도 논의들

1) 이러한 점은 질적 연구와 관련된 대표적인 텍스트를 살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텍스트들이 양적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든 혹은 질적 연구만 독자적으로 제시하든 상관없이 질 개념의 내용이나 질적 인식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연구의 특성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한다(김두섭, 1999; 김윤옥 외, 2001; 신경림 외, 2004; Creswell, 2007).

(Lather, 1993; 이혁규, 2004; Lincoln and Guba, 2005)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질 개념과 질적 인식 그 자체에 대한 탐구로부터가 아니라 특정한 모학문이나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전개되다보니 질적 연구라는 하나의 연구 방법에 공통적으로 담겨야 할 질적 본성의 특성은 사상된 채 패러다임별 내적 차별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 그 결과 패러다임의 차이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질적 연구의 공통적 속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연구의 부족은 질적 연구자로 하여금 질적 연구의 본질과는 유리된 채 자신의 모학문이나 인식의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타당도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극단적으로 타당도 기준에 대한 논의가 분절화 되는 현상을 보일 수 있다(Wittemore et al., 2001). 다시 말해 연구자의 모학문이 가진 특성에 관계없이 특정한 타당도 기준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거나 특정 패러다임에서는 특정 타당도 기준만이 유용하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2)]

이러한 배경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타당도 논의의 질적 본성에 대한 탐색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 연구 작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어지는 2장에서는 존재론의 범주론과 인식론, 그리고 질적 연구의 철학적 기초에 대한 논의들을 검토하여 질 개념과 질적 인식을 보다 심층적으로 밝히려는 노력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다양한 모학문과 질적 연구의 이념적 차이를 가로질러 존재하는 다양한 질적 연구의 특성들의 철학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동시에 3장에서 이루어질 타당도의 탐색에 요청되는 지적 토대를 확보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핵심부분인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다양한 타당도 개념에 대한 해석과 논의가 수행된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문제제기인 질적 본성에 충실한 타당도 모색의 기초를 탐색하는 동시에 타당도 기준과 관련하여 진행된 담론의 흐름과 내용을 비판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보다 바람직한 타당도 기준에 관한 논의 전개의 방향과 함의를 간략하게 제시한다.

2. 질 개념과 질적 인식

1) 질 개념에 대한 철학적 탐구

질적 연구가 가진 다양한 특성들의 공통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질 개념 그 자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질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철학적 논의이자 이후 다양한 범주론 논의의 기초가 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category)[3)]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그는 철학의 핵심 주제인 존재에 대한 탐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존재가 특정한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다는 데 착안하고 존재에 대한 서술이 모두 10개의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하는

2)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들어 유력한 질적 연구의 모학문으로 등장한 현상학에 대한 관심을 검토하면서도 질적 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상학과 질적 연구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보다는 질적 연구의 질 개념 그 자체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에 전착하기를 지적하는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이남인, 2006).

3) 본 논문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대한 김진성(2005)의 한글 번역본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Sachs(1999)와 Hope(1960)의 영역본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10개의 범주는 본 연구의 관심인 질을 포함하여 실체, 양, 관계, 장소, 시간, 자세, 소유, 능동, 수동이다(Aristoteles, 2005)[4]. 아리스토텔레스는 질(poion; quality) 범주를 논의하면서 크게 질의 내용에 대한 부분과 질의 인식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질 범주의 내용은 질이 어떤 사물이 가진 본질적 차이성(the specific difference of its thinghood)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질에 따라 존재는 서로 다른 것으로 구별된다. 예를 들어 두 발 달린 동물과 네 발 달린 동물은 '두 발 달림'과 '네 발 달림'이라는 상이한 질을 가진 다른 동물이며(Aristoteles, 2005: 239), 이는 근본적으로 '두 발 달림'이란 질을 가진 동물이 '네 발 달림'이라는 질을 가진 동물과 같은 종류의 존재 혹은 일부분으로 이해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두 발과 네 발은 질적으로 상이한 존재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된 하나의 표현에 불과하며 만일 네 발 달린 동물이 두 발 달린 동물보다 양적으로 두 배를 빨리 달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양적 측면은 우연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다.[5]

질 범주의 두 번째 내용은 대상이 가진 변화하지 않는(motionless) 속성, 예를 들어 수(number)와 같은 대상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 속성을 의미한다(Aristoteles, 2005: 239). 이 경우 질은 수들의 실체 즉 본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의 질은 사물의 특정 측면이나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그 사물에 내재적이며 본질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6이라는 수의 실체는 2의 3배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되거나 6이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6에 해당되는 본질적 속성이 존재함으로 인해 확정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숫자 6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숫자 6은 6이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6이(라는 본질적 속성이) '한 번인 것(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Aristoteles, 2005: 239; 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에 의해 추가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이다.[6]

세 번째 질 범주의 내용은 사물이 가진 변화의 속성과 연관되어 있다(Aristoteles, 2005: 237; 240). 여기서 변화의 속성으로서 질의 의미는 어떠한 실체나 사물이 변화했다고 규정할 때 그 변화의 기준 혹은 표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질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질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양 범주와의 비교를 통해 분명히 해 보면, 양적인 속성은 그 양적 속성의 증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양적 속성을 가진 대상 자체가 변화했다고 볼 수 없는 반면에 질적 속성에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질적 속성을 가진 대상이 변화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물은 스스로를 구성하는 질적 속성에

4)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라고 칭해지는 어떤 존재(제1실체)에 대해 10개의 범주를 사용하면, 그는 인간(실체)이며, 5피트정도(양)의 키에, 재능 있고(질), 플라톤보다는 나이가 많았으며(관계), 아테네(장소)에서, 기원전 5세기경(시간)에 살았고, 외투를 걸치고(소유), 앉아서(자세), 옷가지를 조각내고 있던 중(능동), 독살되었다(수동)라고 서술될 수 있다(Kenny, 2006: 80).

5) 질 범주가 가진 이러한 차이와 분별의 속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하는 10개 서술 범주 가운데 질과 자주 비교되는 범주인 양(poson; quantity)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 양은 '[둘 중 어느 하나가 혹은] 각각이 본래 하나이자 이것(개체)이 ([둘 또는] 여러 개의) 들어 있는 것(구성요소)들로 분할되는 것'을 뜻한다(Aristoteles, 2005: 237; 문장부호는 인용 원문에서 사용). 양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질 범주와는 달리, 양 범주는 질적으로 동일한 것들이 동일함을 유지한 상태에서만 분할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질의 경우에는 동일함을 유지한 채 분할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6) 양적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변수의 속성(attribute)을 질적으로 범주화할 때 어떤 속성이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1과 0으로 표시하는 논리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해당하는 것들의 변화에 의해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질적 변화는 사물의 총체적인 변화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질 범주에 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두 번째 논의는 질적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질적 범주가 '뛰어남'과 '뒤쳐짐' 혹은 '선'과 '악'의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Aristoteles, 2005: 237-240). 부연하자면 앞서 질 범주의 내용 가운데 한 가지로써 변화하는 사물의 속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물의 변화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잘못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다. 결국 질 범주는 특정한 방식의 변화 혹은 움직임과 관련된 기준에 따라 우열과 선악이라는 가치적 판단을 가능하게 만들고, 따라서 질은 단순히 '어떠어떠하다'고 묘사되거나 기술되는 것을 넘어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본 논문의 관심사인 질적 인식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선과 악의 질적 판단은 '혼이 든 것'(살아있는 생물)에 해당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 뜻(의지)을 가진 것들의 경우에서 그러하다'(Aristoteles, 2005: 237; 240)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충실히 따른다면 선악과 우열의 질적 판단은 인식의 주체 특히 자유의지를 가진 인식주체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이는 인식주체가 가진 특정한 판단의 방식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질과 인식주체의 관계를 보다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는 인식론에서 질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인식론은 인식주체가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지식을 확립해 가는지를 탐구하는 철학의 영역으로서(Bryman, 2004: 11), 특히 인식대상인 존재와 인식주체인 인간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고유성을 탐구하려는 본 논문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인식론의 검토는 유용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인식론에서도 사물의 질 혹은 본질을 인식대상인 실재가 가진 '무엇임(what-ness)' 혹은 '어떠어떠한 존재성'으로 규정한다(Kenneth, 2002: 222). 달리 말해 인식주체가 어떤 사물이 존재함을 알아차릴 수 있고, 어떤 사물을 다른 사물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물의 고유한 본성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성질에 의해 어떠한 존재가 하나의 존재로서 규정된다는 의미에서 개별적 통일체 안에 통일성으로 존재하는 결정성이 질이라고 정의된다(Kenneth, 2002: 224).

인식론에서 바라보는 질 개념을 자세히 살펴보면, 앞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범주론에서 언급했던 질 개념의 핵심 논의가 그대로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식론에서 정의하는 질 역시 어떤 존재를 다른 존재와 상이하게 구별하여 각각의 존재를 개별적인 것으로 만들어 내는 차이와 다름의 속성이다. 뿐만 아니라 개별적 통일체 안에서 질은 동일한 것으로 결정되어 있고, 만일 이러한 동일성과 결정성이 깨어지거나 분할된다면 이는 곧 바로 다른 존재, 즉 상이한 질로 변모하게 된다.

그렇다면 존재론적 질 규정과 구별되는 인식론적으로 고유하게 논의되는 질 혹은 본질이란 어떤 것일까? 달리 표현하여 실재의 무엇임 혹은 어떠어떠한 존재성이라는 본질의 규정성은 인식론적 맥락

에서는 어떻게 재규정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식대상과 인식주체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인식론에서는 인식론적 본질은 존재론적 본질에 기초하여 인식주체가 행하는 '경험의 창조적 표현'으로 규정된다(Kenneth, 2002: 228; 강조는 필자).

이와 같이 인식주체가 경험한 존재론적 본질의 창조적 표현이 질이란 생각은 질적 연구의 본질과 관련하여 두 가지 흥미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첫째, 경험의 창조적 표현이라는 의미는 앞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서 강조했던 바와 같이 질이라는 것이 혼이 있는 생물, 자기의지와 뜻을 가진 주체의 겪음(경험)에 관한 가치 판단과 연관됨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해 준다.[7] 둘째, 창조적 표현이라는 것은 인식주체의 경험에 의해 인지되고 해석된 인식대상의 본질이 언어, 노래, 그림, 사진 등과 같이 적절한 매개물(medium)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됨으로써 인식 그 자체와는 구별되는 그 무엇인가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창조적 표현이라고 해서 이러한 표현의 산물이 인식주체의 인식대상과 질적으로 차별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질의 개념상 사물의 존재 성격을 구성하는 온전한 속성 때문에 질적 속성들은 스스로 분할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대상에 대한 인식과 이러한 인식의 창조적 표현 사이에서 어떠한 질적 속성이 분할된다면 이는 바로 질적으로 다른 속성들로 나누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질적 속성이 질적인 한 그 속성은 총체적일 수밖에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질 개념에 대하여 다음의 두 가지 함의는 분명한 것 같다.

첫째, 질의 개념과 내용을 확정할 때 흔히 사용되는 방식처럼 양(quality) 범주와의 비교를 통하거나 양이 아닌 것이 질이라는 이항적(dualistic) 인식방식으로 직접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과 양은 실체(제1실체)를 서술하는 10개의 범주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것들로서 질은 양과의 비교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내용과 성격을 가진 별개의 범주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와 비교하는 것도 나름대로 그 의의를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는 전혀 별개의 것으로서 상이한 인식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해 보인다(조용환, 1999: 103).

둘째, 아리스토텔레스의 기본적 접근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실체가 인간의 논리와 언어로, 즉 주어와 서술어의 형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는 존재에 대한 탐구 방식이 독자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인 인간이 이를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며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철학적 관심인 인식론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인식론에서 인식의 본질이 존재의 창조적 표현이라고 정의하는 것에서도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결국 질적 범주의 탐구에서 중요한 사항은 이를 인간 경험과 어떻게 관련지어 분석할 수 있느냐에 있다.

7) 이러한 점은 질 범주에 해당하는 그리스 단어인 포이온(poion)의 라틴어 번역인 qualitas의 어근인 qu가 원래 겪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식주체가 어떠한 인식대상에 대해 특정한 겪음을 경험한 후 그로 인한 자기 자신의 변화를 인식주체가 받아들인 것을 의미한다는 지적을 고려하면 더욱 분명해진다(이정우, 2004: 338-353).

2) 질적 인식과 질적 연구

(1) 질적 인식과 질적 패러다임

앞서 서론에서 적절한 타당도 기준을 모색하는 데 있어 다양한 질적 접근, 예를 들어 근거이론, 현상학, 사례연구, 민속지학 등을 관통하면서 이러한 연구들을 질적 연구라는 단일 범주에 속하게 만드는 공통된 생각체계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통된 질적 연구의 인식토대를 질적 패러다임(qualitative paradigm)이라는 개념(Boyd, 2001: 67)을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근거이론과 현상학적 접근과 같은 질적 연구에 속하는 다양한 개별 접근들이 주로 각자의 고유이론과 방법론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기초가 되는 모학문을 강하게 반영하는 반면, 질적 패러다임은 이들 개별 접근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전제에 기초하여 질적 연구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분석틀 혹은 철학적 기초, 특히 인식론적 기초를 명확히 한다(Boyd, 2001: 67-81).

그렇다면 다양한 모학문이나 개별적인 접근들을 아우르는 질적 패러다임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질적 연구의 철학적 기초를 보편적으로 탐구하는 Boyd는 질적 연구의 구조를 인식의 형태와 표현의 형태(mode of awareness and expression)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Boyd, 2001: 80-81). 그에 의하면 인식의 형태란 인식주체가 자신의 고유한 경험(experience)과 감각(perception)을 통해 세상과 우리의 삶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표현의 형태란 인식주체가 스스로 인식하고 이해한 것을 인식의 결과로 드러내는 것이다. 질적 패러다임과 유사하게 질적 속성을 중심으로 하여 이를 인식론적 차원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접근은 다른 연구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Eisner는 인간이 세상을 경험하고 표현하며 살아가는 전체 과정을 질적 탐구(qualitative inquiry)라고 부르면서 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Eisner, 1998). 첫째 부분은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는 인식주체가 자신의 감각적 인지를 통해 대상의 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별하거나 가치를 할당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얻어진 질적 인식이 공적인 형태(public form)를 취해 표현되는 것으로써 한 개인이 경험한 주관적 질적 경험이 타인도 이를 공감할 수 있도록 공적인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Eisner, 1998: 22).

이상의 논의에 기초해 볼 때, 다양한 질적 연구의 기법들과 접근법들에 내재하는 공통적인 속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질적 연구의 특성과 긴장을 적절히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은 질적 개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식론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질적 패러다임을 이용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질적 패러다임의 구체적 내용은 인식대상과 인식주체를 한 축으로 하고 인식주체와 인식결과로서의 지식을 다른 축으로 하여 진행한 후 이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8)]

---

8) 인식과 표현을 구별하는 본 연구의 기본적 분석틀에 대해 두 가지 반박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개별주체의 감각 혹은 인식구조가 가진 사회적 성격에 기초하여 질적 연구에서 개별 인식주체가 가지는 인식 구조와 표현구조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가능하며, 또한 개인이 가진 인식과 표현의 양식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과 형식을 가진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속의 개인으로서 인식주체가 가지는 인지구조에 사회적 성격이 존재함을 충분히

(2) 질적 패러다임의 본성으로서의 주관성과 사회성

인식주체, 인식대상 그리고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경험한 결과로서의 지식은 질적 인식의 특수성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되어 순환 고리를 이룬다. 그리고 이러한 질적 인식의 특성은 인식의 주체인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성격인 주관성과 사회성의 긴장으로 더욱 분명해진다.

질적 인식을 먼저 인식주체와 인식대상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인식주체가 인식대상을 인식하는 근본 속성은 주관성(subjectivity)이며, 그 내용은 인식주체가 경험한 인식대상에 대한 이해(verstehen)이다. 질적 연구의 전통에서도 다양한 질적 연구들을 통합하는 핵심 개념은 주관성과 이해로 널리 알려져 왔다(Patton, 1990; Bogdan and Taylor, 1975). 인식주체는 자신이 경험하는 인식대상을 이해하면서 그로부터 의미를 얻거나 혹은 부여하는데 이는 인식주체가 자신의 감각으로 받아들인 경험을 스스로 분별해 나가는 심리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의 사고와 행위와 연관되어 지식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의미이다. 그런데 의미 발생과 변화의 핵심을 형성하는 것이 바로 개별적 주관성이며 이때 형성되는 의미는 인식주체가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규정짓는 인지범주(cognitive category)라고 볼 수 있다(Krauss, 2005: 762-763).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질적 연구가 근거하고 있는 존재론적 입장은 기본적으로 주관주의(subjectivism)이며 인식론적 입장은 해석주의(interpretivism)라고 보는 것이 전적으로 타당하다.[9)]

이 때 질적 인식의 주관성이라는 의미는 개별주체의 인식, 즉 부여된 의미나 해석이 마치 상상이나 환상과 같이 비현실적이어서 실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직 당사자에게만 온전히 의미 있는 것으로써 한정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간호학 분야의 연구자가 어떤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려고 할 경우 진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환자인 당사자가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의 여부이지 그 환자의 고통이 다른 환자의 고통과 어느 정도 유사한지의 여부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Boyd, 2001: 72).

따라서 질적 인식이 가진 본질적 주관성은 환자의 고통이라는 하나의 현상에 대해 환자 자신이 직접 느끼는 인식과 환자의 고통에 대해 연구자가 파악한 인식이라는 두 개의 별개 의미를 낳는다. 달리 표현하면 인간이 이해하는 현실은 인식주체의 수만큼 다양한 복합적 현실(multiple reality)일 수밖에 없고(Cresswell,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질적 연구자가 연구대상을 연구한다고 할 때, 이것은 연구참여자가 스스로 경험하여 주관적으로 이해한 것을 연구자가 다시 주관적으로 재파악하는 이중의 해석학(Sayer, 1992) 속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질적 인식의 순수 주관성은 인식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질적 인식이 가진 또 하나의 본질적 속성과 긴장 속에 통합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질적 인식에서 사회성과 주관성이 접촉하는

인정하는 진영에서도 보편적이거나 평균적인 사회성으로 결코 환원할 수 없는 개별적인 선호체계가 존재한다는 주장(Bourdieu, 2006, 특히 제 2부)이 제기되고 있고, 개인이 가진 인지와 표현에는 간극이 존재하며 실제로 한 인간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인지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다(Polany, 2001).

9) 질적 연구의 존재론적 입장과 인식론적 입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Bahari(2010)를 참조 바란다.

지점은 어디일까? 그것은 인식주체가 자신의 인식대상을 적절하게 이해하려는 욕구 속에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인식주체로서의 질적 연구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한 인식대상에 대한 의미, 이해, 판단, 평가 등이 진정한 것이라고 어떻게 스스로 납득할 수 있으며 또 타인에게 이러한 진정성을 주장할 수 있을까?[10)]

연구자가 자신의 질적 경험의 진실성(authenticity)을 확신해 나가는 작업은 기본적으로 개별적 존재로서 인식주체가 가진 주관성의 폐쇄성과 단절성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인식주체는 최대한 자신의 인식경험과 연관된 많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경험을 온전하게 하나의 통일체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이를 위해 질적 인식의 주체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방법은 크게 두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 인식주체는 인식대상의 총체적 본질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인식대상과 관련하여 자신의 감각기관으로 경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접촉을 시도할 것이며, 무엇보다 인식대상이 놓여있는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다양한 감각경로와 복합적인 인지구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표상되는 연구대상을 풍성하게 경험하려 할 것이다. 질적 연구는 이러한 방식의 인식 전략을 자연주의 접근, 맥락적 접근, 총체적 접근 등으로 특성화하여 왔다(Eisner, 1998; Boyd, 2001; Lincoln and Guba, 2005). 둘째, 다른 한편으로 인식주체는 경험을 해석하는 자신의 인지범주 혹은 판단범주가 주관적 폐쇄성을 넘어 보다 확실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확인하려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식주체는 두 가지 전략을 시도한다. 첫 번째는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가진 내재적인 본질을 온전히 인식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인식주체 자신이 인식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선이해의 작용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인식주체인 자신이 경험하고 이해한 지식이 스스로의 주관성에 한정되어 실제 연구의 대상이 경험한 본질과 유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개방적 접근이라는 문제제기를 통해 앞서 독립된 한 개인의 순수한 주관적 경험과정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혹은 공적 이해가 침투하게 되고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인식주체는 인식대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을 넘어 이를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인식주체의 인식이 가진 순수 주관성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된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존재로서 인식주체가 가진 인식범주는 자신이 가진 고유한 존재성에 더하여 사회성과 역사성을 지니게 되고, 개별 인식주체의 인식은 일정 정도의 공적인 형태와 내용, 즉 사회적 구성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인식범주가 사회성을 지닐 수 있음을 보이는 이러한 측면은 질적 연구자들이 한 개인의 질적 인식, 즉 해석과 의미부여가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Krauss, 2005: 763)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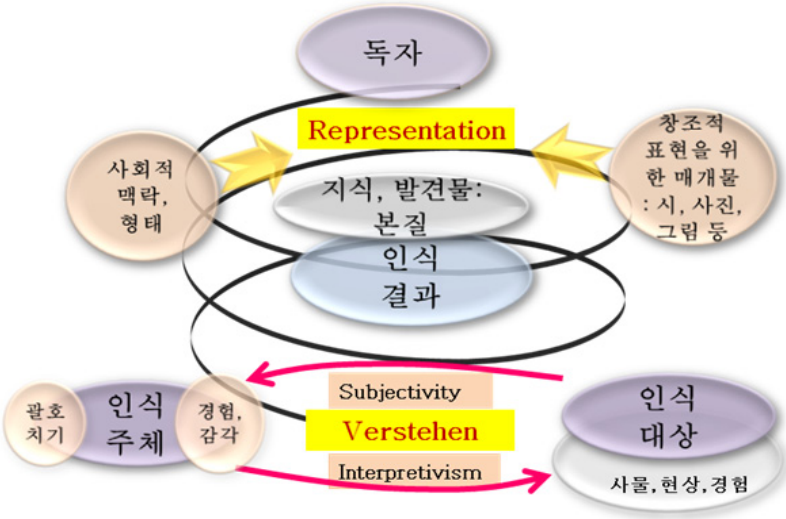
질적 인식의 두 가지 속성인 주관성과 사회성의 긴장은 인식주체 자신이 경험하고 파악한 인식의 결과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기본적으로 인식의 결과인 지식(knowledge) 혹은 발견

10) Shweder는 질적연구의 철학적 기초와 관련된 질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질이 정말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일종의 환상인가라는 존재론적 질문과 더불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위치에 놓인 인식주체의 특수성과 개별성이 실재에 대한 인식을 불분명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진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인가라는 인식론적 질문이라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다(Shweder, 1996: 179-180).

물(findings)은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대상에 대해 알게 된 풍성한 정보를 정확한 표상으로 조직화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표현한 것이다(Boyd, 2001: 73). 따라서 인식주체는 자신의 주관적 경험의 총체적인 모습을 온전하게 표현하고자 할 것이며, 특히 논리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예를 들어 쉽게 관찰되지 않는 감정이나 느낌, 그리고 다른 대상으로 환원이 불가능한 의미와 같이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인식주체의 정신적 삶에 해당하는 것들을 충분히 담아내기 원할 것이다(Shweder, 1996: 180). 그러나 동시에 인식주체는 이러한 자신의 주관적 표현들이 주관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안정적인 내용과 사회적 형태를 갖추기를 기대할 것이다.

따라서 질적 연구자로서 인식주체는 자신의 인식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만약 자신의 주관적인 질적 경험을 보편적이고 사회적인 표상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개별적이고 풍부한 질적 경험이 사상될 것이고, 반면에 인식과정에서 경험한 개별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다 보면 이는 개별적, 주관적 경험으로 고립되어 사회적 교류는 고사하고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도 그 결과를 충분히 확신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인식대상과 인식주체 그리고 인식결과를 포함한 질적 패러다임은 인식의 풍성함과 표현의 공공성이라는 상호 긴장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11]

이상과 같은 질적 인식의 본성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질적 인식의 핵심에는 근본적으로 인식주체의 존재에서 비롯되는 주관성과 사회성의 긴장이 존재하며, 이러한 긴장은 질적 패러다임의 두 과정인 인식과정과 표현과정에서 각각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인식주체의 인식대상에 대한 탐구를 통한 인식결과물의 생성과정

11) Eisner는 질적연구자가 가진 이러한 특성을 다음과 같은 구절로 정확하게 그려내고 있다. "질적 연구자(writer)는 질(qualities)에서 시작하여 언어(words)로 끝을 내야 하는 반면에, 질적 연구의 독자(reader)는 언어로 시작하여 경험으로 끝을 내야 한다."(Eisner, 1998:22). 이에 덧붙여 강조되어야 할 것은 연구자 자신도 질적 연구 과정에서 한 사람의 독자로서 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질적 연구자 자신이 인식범주가 주관성과 사회성의 통일체로 파악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3. 질적 특성과 질적 연구의 타당도[12] 기준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질 개념과 질적 인식의 보편적 토대를 바탕으로 타당도 기준의 질적 특성과 관련된 기존의 담론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질적 패러다임의 두 가지 근본적 속성인 주관성과 사회성의 긴장을 중심으로 타당도 담론의 전개와 그 변화양상을 탐색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1) 질적 패러다임의 주관성[13]의 회복과 확장

(1) 질적 인식의 주관성 확보 경향

질적 연구 초기의 타당도 담론은 인식 대상의 주관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측면으로 전개되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질적 연구 초기에는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물의 사회성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질적 인식의 주관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인식 주체, 즉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는 방법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후에 점차로 인식 대상과의 참여와 교류를 통해 주관성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나타났다.

그러므로 초기의 타당도는 외재주의적 엄격성(rigor)과 강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엄격성이란 질적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그 결과의 해석을 신뢰할 수 있는(trust-worthy) 정도를 의미한다(Lincoln and Guba, 1985). 일반적인 의미에서 엄격성은 심각성, 협착(stricture), 엄격함(harshness), 엄격한 측정(harsh measures), 규칙의 엄정한 적용 등으로 정의된다(Sykes, 1985; Davies and Dodd, 2002: 280 재인용). 이렇게 엄격성을 규정된 절차와 관련된 '엄격한 학제성(rigorous scholarship)'의 결과로 보면 이를 위협하는 요소는 반응성(reactivity)과 편견(bias)이 된다(Padgett, 1998). 따라서 질적 연구 초기에는 연구자가 반응성과 편견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인식 대상의 속성을 경험함으로써 인식 대상의 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기존의 '타당도(validity)'와 '신실성(trustworthiness)' 기준을 고찰해 보면 연구물의 사회성에 대한 중시와 함께 질적 주관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방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검토할 타당도(validity) 개념에는 아직 질적 인식의 주관성이 잘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12)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질적 연구의 타당도(validity)는 질적 연구의 수행결과가 가진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들인 연구의 질(quality), 타당도(validity), 신실성(trustworthiness), 엄격성(rigor)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3) 질적 연구가 중시하는 주관성(subjectivity)을 사적(private)이거나 개인적인 것(individual)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의 주관은 진공상태가 아닌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고 작용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관이 공적이고 집단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작용하는지를 밝히는 일은 질적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조용환, 2006:100).

같다. 질적 연구 초기의 타당도 개념은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던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개념(Campbell and Stanley, 1966)에서 출발하였다(Seale, 2002). 이러한 타당도 전략은 한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이라는 인과적 전제를 증명하기 위해 이를 저해하는 요인을 찾고 극복함으로써 타당도를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써 양적 패러다임의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실천 전략인 삼각검증법(Denzin, 1978)을 예로 들면, 이 방법은 기하학에서 유래된 다면적 방법으로써 연구자의 관점과 시간, 공간 등을 달리 하여 연구를 재검토함으로써 타당도를 높이려 노력한다. 구체적으로 Mathison(1988)은 자료, 연구자, 방법론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삼각검증법을 소개하고 있다.[14]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은 인식주체와 인식 대상이 분명한 경계를 갖고 서로 대립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로 검토할 신실성(trustworthiness) 개념은 주관성 확보 측면에서 진일보한 면을 보여준다. 즉, 주관성 확보에 인식 주체의 노력만이 아닌 인식 대상의 참여와 확인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 신실성 개념에 반영된 질적 특성과 전략을 고찰하기 전에 먼저 신실성(trustworthiness) 개념(Lincoln and Guba, 1985)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신실성은 질적 연구 고유의 타당도 개념의 필요성에 의해 등장하였다. 이 개념은 양적 연구의 타당도 개념과 정확히 조응하면서도 이와 다른 개념적 용어로 구성되었는데, 그 안에 신빙성(credibility), 적용성(transferability), 신뢰성(dependability), 확증성(confirmability)이라는 네 가지 하위 속성을 갖고 있다. 이 개념은 주관성과 사회성의 특성을 고루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당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중 본 연구자들은 신빙성(credibility)[15] 확보를 위한 실천 전략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 전략은 삼각검증, 연구와 다소 무관한 동료연구자로부터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받거나 연구 결과에 대한 반대 사례를 찾아봄으로써 기존 가정에 도전하는 것 등 기존의 방법과 일정 부분 유사하다. 그러나 여기에 새롭게 '지속적 관계형성(prolonged engagement)' 및 '참여자 확인(member check)' 전략이 포함되었다. 특히 저자들은 가장 중요한 기법이 '참여자 확인'임을 강조한다(Lincoln & Guba, 1985; Seale, 2002 재인용). 이것은 질적 특성인 '고유성', '주관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인식 대상의 참여와 서로간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질적 타당도가 양적 패러다임에서 질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해가면서 엄격성, 즉 연구물의 사회성만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아닌 본질적 특성인 주관성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의 사례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질적 연구의 타당도에서 주관성을 배제하고 엄격성만을 강조할 때 당면하게 되는 도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엄격성을 용어상의 의미 그대로 체계화된, 질서 정연한, 중립적인 접근으로 이해한다면 유연성과 모순, 그리고 불완전성과 가치를 허락하는 다른 연구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비엄격

14) 첫째, 자료의 삼각검증은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고, 둘째, 연구자 삼각검증은 다수의 연구자 참여를 통해 개인적인 편견과 주관을 배제하여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방법론적 삼각검증은 다양한 방법 활용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

15) 이 개념은 양적 연구의 진리값(truth value) 개념을 대치한 것으로 연구 결과의 진실성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가와 관련된다.

한' 것으로써 결국 신뢰성이 결핍된 연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인식의 주관성과 해석적 관점을 본질로 하는 질적 연구에서 엄격성은 도달하기 어려운 기준이 된다. 또한 질적 연구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성 개념의 적용이 오히려 질적 특성을 위협하게 되는 모순을 갖게 한다.

이렇게 본다면 질적 방법론자인 Mishler(1990)가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타당도와 관련된 Campbell과 Stanley의 작업을 질적 연구자들이 단순하게 그 절차를 따라야 하는 일종의 기술적 적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이다(Seale, 2002). 앞서 본 논문에서 진행된 질적 범주와 인식에 대한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질적 연구에서 삼각검증법의 적용을 단순히 연구자, 기법, 사례 등을 양적으로만 확대하는 방식은 질적 타당도 확보라는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삼각검증법의 활용은 대상과 현상의 고유성 즉 본질을 밝히는 데 있어 저해요인(threats)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자의 상상력과 비판력의 측면에서 받아들여 질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수를 늘리더라도 질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수의 확대에 불과할 뿐 본질적 속성인 주관성을 포착하기 위한 관점의 다각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삼각검증법을 활용할 때의 전제 조건은 외형적 비교나 계량적 비교가 아닌 '의미의 비교'와 '맥락의 비교'라는 지적은 타당하다(조용환, 1999).

정리하면, 질적 연구 초기에는 실증주의와 외재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 타당도 기준에 절차적 엄격성을 적용하고 사회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더 두드러진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점차 인식 대상의 참여를 통한 주관성 확보가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기존의 타당도 기준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2) 질적 인식의 주관성의 다양한 확장

질적 연구의 타당도 기준에서 고유성, 주관성의 확보라는 과제는 인식 주체의 독자적인 노력 뿐 아니라 인식 대상과의 협조적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인식이 보다 분명해졌다. 따라서 앞서 논의하였듯이, 연구자는 연구 대상과 관련된 자신의 선이해를 인식하는 동시에 인식 대상과 오랜 기간 접촉하며 질적인 경험을 겪음으로써 그들의 관점과 경험을 재창조하려 노력한다. 또한 그렇게 도출된 연구 결과를 인식 대상으로부터 확인받음으로써 타당도를 증명하려 한다. 그런데 이것은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이 동등한 교류의 위치에 서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인식주체와 인식대상이 각기 다른 조건적 상태에 있다면, 즉 평등한 상태에서 개방적으로 교류하고 있지 않다면 어떠한 점을 더 고려해야 하는 것일까?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타당도 기준의 개념아 확장되는 전개양상을 살펴보고 주관성의 확장에 따른 도전은 무엇인지를 논의할 것이다.

주관성이 강조되면 당연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대주의(relativism)는 확립된 진리(established truth) 개념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도 점차 재현의 정확성보다는 어떤 관점에서 무엇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합의되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Seale, 2002). 2장에서 언급한 대로, 인간이 이해하는 현실은 다양한 복합적 현실(multiple reality)이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을 파악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당사자의 경험과 이해를 나(연구자)의 경험을 통해 또 다시 주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Lincoln과 Guba의 신실성 개념은 이러한 담론을 반영하여 그 개념을 확장시켜 왔다. 그들은 '4세대 평가(four generation)'에서 5번째 기준으로 진실성(authenticity) 개념을 제시하였다(Lincoln과 Guba, 1989; 1994). 이러한 진실성(authenticity) 개념의 하위 구성요소[16]는 공정성(fairness), 존재론적 진실성(ontological authenticity), 교육적 진실성(educative authenticity), 촉매적 진실성(catalytic authenticity), 전술적 진실성(tactical authenticity)을 구성요소로 삼고 있다. 이는 Lincoln과 Guba가 점차로 지식과 관련하여 상대주의자(relativist)의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이다(이혁규, 2004). 그러므로 상대주의적 진리관의 전개에 필수적인 고려사항이 되는 정치적 이해(political conception)와 힘의 관계에 대한 의식, 힘의 관계를 둘러싼 교육적·윤리적 실천의 의미에 대한 관심(이혁규, 2004)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실재(reality)는 생활세계 속에서 우리의 간주관적(intersubjective) 경험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구성주의적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와 참여자간 의미의 공동구성(co-construct)에 초점을 두며(Guillemin and Gillam, 2004; Lietz, Langer, and Furman, 2006: 443 재인용), 연구결과는 대화(dialogue)를 통해 타협될 수 있기 때문에(Angen, 2000: 386),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는 이전에 비해 더욱 중요해졌다.

이러한 관계적 측면에서 엄격성은 양적 연구에 부과된 고정불변의 표준 또는 절차가 아니라 참여자가 전달하고자 한 의미(presented meaning)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represent)하려는 과정 또는 윤리적 노력으로 개념화된다(Gambrill, 1995; Lietz et al., 2006: 443 재인용). Davies와 Dodd(2002)는 엄격성 개념에 이러한 관계적 측면을 병합시킨다. 그들은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주의기울임(attentiveness), 공감(empathy), 배려(carefulness), 민감성(sensitivity), 존중(respect), 정직성(honesty), 반영(reflection), 양심(conscientiousness), 관계 맺기(engagement), 인식(awareness), 개방성(openness), 맥락(context) 등과 연결하여 개념화하였다. 결국 이러한 개념화는 연구의 타당도를 인식 주체의 윤리적 책무성과 연결시킨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엄격성 개념이 여전히 인식 주체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는 획일적인 절차적 측면이 아니라 인식 대상의 고유성과 주관성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에 기초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엄격성이 질적 패러다임에 맞게 재개념화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생각한다.

이후 Lincoln(1995)의 기준들에는 정치성의 특성이 더 강하게 반영되면서 이전보다 권력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 진실성 확보를 위한 타당도 기준으로 추가된 것은 연구 공동체(inquiry community), 위치성(positionality), 공동체(community), 목소리(voice), 비판적 주관성

16) 공정성이란 연구자가 다른 실재의 범위를 표상할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이는 연구 참여자와 관련자의 견해, 관심, 목소리들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연구 텍스트에 담는가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소외와 주변화를 막으려는 사려 깊은 시도로 볼 수 있다(이혁규, 2004:186). 존재론적 진실성이란 연구란 구성원들이 연구된 현상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야만 한다는 개념으로 연구자와 참여자의 인식의 고양을 의미한다. 교육적 진실성이란 연구란 사람들이 자신보다도 타인의 관점을 인식하도록 돕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으로 연구자와 참여자 및 주변 사람들의 각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촉매적 진실성이란 연구참여자의 행동을 촉진하는 개념이다. 전술적 진실성이란 구성원이 행동하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critical subjectivity), 상호성(reciprocity), 신성함(sacredness), 특권의 공유(sharing perquisites of privilege) 등의 개념이다. 이러한 기준은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 속에서 좀 더 강한 구성주의적 입장을 보여준다(1995:278~287; 이혁규, 2004: 187 재인용)[17].

구성주의적 입장에서 '타당도'를 재개념화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Lather(1993)와 Richardson(1997)이 있다. Lather(1993)는 포스트구조주의 입장을 반영한 탈주적 타당성(trangrassive), 즉 반어적(ironic) 타당성, 의사논리적(paralogic) 타당성, 리좀적(rhizomatic) 타당성, 도발적(voluptuous) 타당성 개념을 제시하였다(조흥식외 역, 2005: 241-242). Richardson(1997)은 포스트모더니즘 텍스트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핵심적 상상력은 경직되고 고정된 삼각검증법으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핵심적 상상력을 수정(crystal)이라고 지칭한다. 수정 개념은 실재란 무한히 다양한 형상들로 구성되며 다차원적으로 나타나고 변형되는 특성을 갖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수정은 외부성을 반영하며, 자체 내에서 굴절시키는 프리즘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유리의 각도에 의존한다(이혁규, 2004: 194). 따라서 연구자가 자기가 서 있는 입장, 즉 관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해진다. 연구의 맥락은 참여자의 위치만이 아닌 그 경험과 의미를 인식하는 연구자의 관점과 위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Toner(2009)는 페미니스트 구조주의자(Feminist constructivist) 입장에서 여성들의 이야기(narrative) 내용과 역동 분석을 위해 '수정화(crystallization)' 개념을 타당도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진실의 실체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표현(representation)되고 있는가라는 관점과 담론이 된다.

이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은 종래의 일원적인 사고의 틀을 깨고 다원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를 촉진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였다. 특히 질적 연구에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소외되고 억압되었던 목소리에 주목하며 당사자의 관점과 위치 속에서 고유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물의 정형화된 틀을 부숨으로써 학문의 사회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기존의 타당도 기준에 대해 비판하지만 이에 대해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연구자가 표현해 낸 것이 질적 인식의 주관성의 반영인지 아니면 연구자의 개별성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논의한 질적 인식의 두 가지 속성, 사회성과 주관성은 분절적으로 대립하는 개념 보다는 연속선상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reciprocity)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적 연구의 사회성이 하나의 고정된 틀로서 인식주체가 따라야 할 외적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면, 질적

17) 이러한 점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이후 사회과학에 끼친 '급진주의'의 영향이 질적연구에도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도입되면서 부각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입장에 대한 존중과 이들 간의 갈등 구조에 대한 논의는 포스트모던적 해체와 재구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급진성의 유산은 다양한 비판적 사회복지의 담론들, 예를 들어 비판적 사고의 기법에 대한 문헌,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제기, 자기 고유의 가치와 사회적 위치 -성찰성- 를 특정한 쟁점과 관련하여 배치하기, 언어 사용과 전통적인 구조 분석에 대한 고찰 등에서 뚜렷하다. 특히 이러한 입장들이 분석의 결정요소를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주관적으로 구성하고 해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급진적 성찰'과 언어 분석학으로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성이 질적연구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된 사회복지실천에 대해서는 Gray and Webb(2009: 76-85)를 참조.

연구의 사회성은 인식주체들의 협력에 의해 사회적 구성을 만들어내는 역동적 사회성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타당도(validity)라는 용어 보다는 타당화(validation)라는 용어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Angen(2000)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질적 연구의 타당도와 적합성 또한 고정불변의 정태적 판단이 아니라 연구공동체내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회적 과정과 순환으로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질적 패러다임의 사회성 모색과 그 방향성

질적 연구의 주관성 회복은 동시에 주관적 폐쇄성으로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서 주관성이 강조될수록 사회성의 추구와 조화가 중요한 담론이 된다. 특히 2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인식의 주관성과 사회성의 충돌 가능성은 인식의 결과를 정리하고 표현할 때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사회성과 주관성 간의 긴장'을 표현적 측면에서의 '엄격성과 창의성 간의 긴장(Whitemore et al., 2001: 522)'으로 명명하고 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인식 주체가 인지 및 감각기관의 통합적 조직화를 통해 탐구한 참여자의 경험은 표현(representation)을 통해서만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구자는 '글쓰기'라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 통합된 경험을 독자에게 전달한다. 하지만 글은 생각과 경험을 붙들어 표현하는 도구임에도 그것들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질적인 경험이 언어로 정리되었을 때 질적인 특성은 상당 부분 사라지기 쉽다[18]. 이와 같이 연구자가 자신의 인식 경험을 연구물 안에서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다. 또한 언어는 현재의 사회적 담론 속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배적 논리에 반하는 억압된 목소리와 의미를 표현하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언어의 제한성과 직접적인 지시적 성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인식 주체는 글이 아닌 다른 자료, 즉 시, 그림, 사진과 같은 창의적 매개물의 이용에 관심을 갖게 된다. 즉 창조적 표현은 고유성과 독특성의 재현과 깊게 관련된다.

이렇게 표현적 측면에서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수사학적 표현의 완성도'(Lincoln and Guba, 1989), '심미적 특징'(Richardson, 1997), '특이함'과 '유려한 문체'(김영천, 2006)와 같은 예술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질적 연구에서 이러한 예술성을 누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Eisner(1998)는 예술에 근거한 연구(art-based research)의 질에 대한 질문은 비평가와 감식가(connoisseur)의 몫이라고 말한다(Piirto, 2002: 443 재인용). 이와 관련한 타당도 기준으로 '전문적 감식안(connoisseurship)'(Eisner, 1985)과 '질적 연구다움'(조용환, 2006)의 개념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전문적 감식안의 개념은 예술작품의 질 평가를 위해서 전문가의 안목이 요구되듯이 질적 연구의 질 평가를 위해 요구되는 전문적 안목을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질적 연구다움'을 갖춘 연구는 "연구자가 자신이 질적 연구자임을 의식하고 질적 연구의 정신과 방법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경험적 연

18) 이에 대해 황수영(2005)은 경험을 표현하는 데 있어 글의 필요성과 한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글이라는 물질성 속에 고착된 진리는 이미 그 생생함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자신의 현전을 재생시키기 위해 글을 필요로 한다."

구"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평가 기준은 정형화된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평가자의 전문적 역량에 의존한다. 하지만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이 각 학제 안에서 의미 있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창의성이 질적 연구의 주요한 특질인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인식의 본성 중 하나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포스트모더니즘은 질적 표현의 다양한 전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Tierney(2002)는 우리의 변화무쌍한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 텍스트에 공간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으며 실증주의 개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글쓰기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즉, 연구자가 항상 연구대상과 일정한 거리를 둔 객관적 존재일 필요는 없으며 연구자는 자기(self)를 텍스트에 삽입하고, 의미 부여를 위해 자기 경험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경계, 표현의 틀은 해체되고 재구성된다. 그러나 경계와 객관적 기준의 부재는 연구물에 대한 가치적 평가를 내리기 어렵게 한다. 또한 극단적 측면에서 볼 때 공적이고 집단적인 맥락에서의 주관성은 상실되고 인식 주체의 개별성과 폐쇄성만 두드러질 수 있다.

이렇게 창의성을 무한히 확장할 경우 연구물의 사회성에 대한 위협은 커지게 된다. 그러므로 질적 연구의 표현과 관련된 타당성 논의는 '엄격성(rigor)과 창의성(creativity)간의 긴장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전개되어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Whitemore et al., 2001: 522). 엄격함(rigidity)만이 강조된다면, 질적 연구 수행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인 예술성과 다예성(versatility) 그리고 맥락에 대한 민감성은 위협받고 고유성과 생생함은 사장되기 쉽다(Sandelowski, 1993:1). 그러나 주관성의 회복을 위해 예술성과 창의성을 강조할수록 개별성과 폐쇄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질 것이다. 이 때문에 한 편에서는 사회과학 연구의 틀 안에서 보다 객관적인 기준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몇몇 연구자들은 인식론적 정향을 초월하여, 질적 탐구(qualitative inquiry) 또한 하나의 연구물(quality of the work)로 보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Lietz et al, 2006: 443). 그렇지만 질적 연구에서 이러한 주장을 객관적 타당도 기준의 불가피성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대립적 개념으로서만이 아니라 창의성과 엄격성 간의 긴장과 또 다른 균형적 조화의 추구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숙고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Eisner의 말을 약간 변형하면 "연구자는 질에서 시작해서 언어로 끝내지만 동시에 독자의 입장에서 그 언어가 인식대상과 주체의 경험을 충분히 전달하고 표현해 내는지를 부단히 숙고해야 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즉, 인식 주체는 표현의 의욕이 앞서 질적 속성을 분할시키거나 희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엄격성을 갖는 동시에 자신의 겪음의 재창조가 질적 특성을 충분히 표현해 낼 수 있도록 창의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은 인식 주체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그리고 인식 주체와 동료 연구자들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인식 주체는 이러한 주관이 형성되는 사회적 과정과 맥락에 보다 민감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의 중요성과 의미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타당도 담론은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아마도 그 이유는 타당도를 하나의 기술적 측면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였거나 혹은 논의의 범위가 너무 넓어 막연하고 어렵게 받아들여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타당도 담론의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는 별도로 내용의 범위 설정과 명확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꾸준히 밝히고자 했던 본 연구의 목적은 질의 존재특성을 고찰함으로써 패러다임별로 분절된 타당도 논의의 공통 기반을 제시하고 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타당도 담론을 탐색적으로 고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본문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질의 특성과 존재론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질 개념과 범주를 검토하고 이를 규명하였다. 그 결과 질의 개념과 내용은 양적 범주와의 비교를 통한 이항적 인식 방식으로 직접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분할되지 않는 '차이'와 '다름'의 속성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존재에 대한 탐구방식은 인식 주체의 인식 대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질적 연구의 인식 토대를 질적 패러다임으로 조망해 보면 크게 인식형태(인식 주체의 경험에 대한 의미 부여)와 표현형태(인식 주체의 이해에 대한 결과물 형성)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질적 인식을 인식주체와 인식대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한 결과 인식 주체의 주관성과 인식 범주의 사회성에는 긴장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질적 연구자에게 이들 사이의 조화와 통합이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의 타당도 담론을 고찰한 결과, 타당도 기준은 질적 본질인 주관성을 반영하면서 질적 특성을 갖춘 연구물을 양산해내기 위한 방향으로 잘 전개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관성이 확장되고 다양해지면서 사회성의 제약과 주관적 폐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주관성과 사회성의 조화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여기에서의 사회성은 기존의 절차적 엄격성에 충실한 외재주의의 사회성과 구별되는 질적 패러다임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성의 개념으로 모색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의 타당도 기준과 관련된 함의를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질적 인식 뿐 아니라 질적 표현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촉구되어야 한다. 타당도 담론에 대한 고찰 결과 기존의 개념들이 질적 패러다임에 맞게 재조명되고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엄격성은 절차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연구자의 윤리적 책임성 측면에서 조명되었고,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은 수정(crystal)으로 공동체, 위치성, 상호성의 의미를 수렴하여 재개념화되는 측면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은 대개 질적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지금까지 질적 표현을 위한 실천적 전략, 글쓰기, 다른 창의적 매개물의 이용 등의 주제는 별로 주목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러나 수행된 연구 결과가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질적 표현으로 만들어진 연구물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

가 보다 활발해져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타당도 논의의 공통기반으로 제시한 질적 특성, 즉 주관성과 사회성을 잘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과 관련된 담론 형성과 논의가 미약한 상태에서 몇몇 타당도 기준을 보편적 기준으로 수용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현재 국내 사회복지학계에서는 대부분 연구의 타당도와 관련하여 Lincoln과 Guba(1985)의 신실성 개념과 실천전략을 정형화된 양식으로 기술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인 언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기저에 연구자의 주관성과 사회성의 모색에 대한 노력과 그 한계에 대한 고민이 녹여져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주관성이라는 질적 본성의 추구를 위한 본래 목적은 퇴색하고 획일적이고 공허한 사회성을 반영하는 규범적 기준만이 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와 관련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넓은 범위에서 질적 타당도 담론을 탐색적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타당도 기준과 관련하여 주제별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예를 들어, 질적 인식을 내재주의와 외재주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며 주관성과 사회성의 조화를 모색하는 측면에서 사회적 구성주의의 대안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주관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주관적 폐쇄성을 극복해 나가는 질적 연구자의 실천 전략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의 내용과 관련하여 많은 비판적 고찰과 논의가 이루어기를 기대하고 후속 연구를 통해 질적 연구의 타당도 기준에 대한 이해와 적용의 폭이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김두섭 역. 1999. 『질적 연구방법론』. 나남. Jennifer, M. 1996. Qualitative Researching. London, U. K.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Ⅰ』. 문음사.

김윤옥・김성혜・김은경・신경숙・신경일・정명화・허승희・황희숙. 2001. 『교육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방법과 설계』. 서울:문음사.

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남인. 2006.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철학』 풀빛미디어

이정우. 2004. 『개념뿌리들』. 철학아카데미.

이혁규. 2004. "질적 연구의 타당성 문제에 대한 고찰". 『교육인류학연구』 7(1): 175-210.

조용환. 2006.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조용환. 1999.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교육인류학연구』 2(1): 91-121.

조흥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가지 전통』. John W. Creswell.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age Publications, Inc.

황수영. 2005. 『철학과 인문학의 대화』. 철학과 현실사

Aristoteles. 2005. 『김진성 역. 범주론, 명제론』. 이제이 북스.

Angen, M. J. 2000. "Evaluating Interpretive Inquiry: Reviewing the validity debate and opening."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0: 378-395.

Bahari, S. 2010. "Qualitative Versus Quantitative Research Strategies: Contrasting Epistemological and Ontological Assumption". *Junal of Teknologi* 52: 17-28.

Bogdan, R., and Taylor, S. 1975. *Introducing to Qualitative Methods*. Wiley.

Bourdieu, P. 2006. *La Distiction*. 최종철 역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Boyd, C. 2001.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Qualitative Research", in Munhall, P. (Ed.) *Nursing Research: A Qualitative Perspective*. Jones and Bartlett, 37-64.

Bryman, A. 2004. *Social Research Method*. Oxford University Press.

Cambell, D. T., and Stanley, J. C. 1966.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 for Research*. Chicago, IL: Rand Mcnally.

Creswell, J.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age Publication.

Davies D., and Dodd, J.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the Question of Rigor."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2(2): 279-289.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 McGraw Hill.

Denzin, N. K., & Lincoln, Y. S.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Eisner, E. W. 1998. *The Enlightened Eye : Qualitative Inquiry and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Practice*. Upper Saddle River, N.J. : Prentice Hall.

Gambrill, E. (1995) "Less Marketing and More Scholarship", *Social Work Research* 19: 40-47.

Gray, M. and Webb, S. 2009. *Social Work: Theories and Methods*. Sage.

Guba, E. G., and Lincoln. 1989. *Four Generatio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Guba, E. G., and Lincoln. 1994. "Competing Paradigm in Qualitative Research." in N.K. Denzin and Y.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CA:Sage, 105-117.

Guillemin, M. and Gillam, L. (2004) "Ethics, Reflexivity, and" "Ethically Important Moments" "in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0(2): 261-280.

Hammersley, M. (1992). *What's Wrong with Ethnography: Methodological Explorations*. Routledge.

Hope, R. 1960. *Aristotle Metaphysics*. Ann Arbor :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Krauss, S. 2005. "Research Paradigms and Meaning Making: A Primer", *The Qualitative Report*, 19(4) : 758-770.

Kenneth G. 2002. 김보현 역. 『지식철학』. 철학과 현실사.

Kenny, A. 2006. *An Illustrated Brief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Blackwell.

Lather, P. 1993. "Fertile Obsession: Validity After Poststructuralism." *Sociological Quarterly* 34(4): 673-693.

Lietz, C. A., Langer, C. L., and Furman, R. 2006. "Establishing Trustworthiness in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Qualitative Social Work* 5(4): 441-458.

Lincoln, Y. S., and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Lincoln, Y. S. 1995. "Emerging Criteria for Quality in Qualitative and Interpretive Research." *Qualitative Inquiry* 1(3): 275-289.

Mathison, S. 1988.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er* 17:13-17.

Misher, E. G. 1990. "Validation in Inquiry-Guided Research: the Role of Exemplars in Narrative Studies" *Harvard Educational Review* 60(4): 415-442.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Patton, M. Q. 1990. *Qualitative evaluation and research method.* Newbury Park, CA: Sage.

Piirto Jane. 2002. "The Question of Quality and Qualifications: Writing Inferior Poems as Qualitative Research."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4: 431-445.

Polany, M. 2001. 표재명 외 역 『개인적 지식』. 아카넷.

Richardson, L. 1997. *Fields of Play: Constructing an Academic Life.* New Brunswick, NJ: Ruthers University Press.

Sachs, J. (1999). *Aristotle's Metaphysics.* Santa Fe, N.M. : Green Lion Press.

Sandelowski, M. (1993) "Rigor or Rigor Mortis: The Problem of Rigor in Qualitative Research Revisited." *Advanced in Nursing Science* 16(2): 1-8.

Sayer, A. 1992. *Method in Social Science: A Realist Approach.* Routledge.

Seale, C. 2002. "Quality Issues in Qualitative Inquiry." *Qualitative Social Work* 1: 97-110.

Shweder, R. (1996). "True Ethnography: The Lore, the Law, and the Lure", in Jessor, R., Colby, A., Shweder, A. (Eds.) *Ethnography and Human Development.*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5-52.

Sykes, J. B. (Ed.) (1985). *The Concise Oxford English dictionary.* Oxford, UK: Clarendon

Tierney, W. G. 2002. "Get Real: Representing Reality." *Qualitative Studies in Education* 15(4): 385-398.

Toner, J. 2009. "Small is not too Small: Reflections Concerning the Validity of very small Focus Groups." *Qualitative Social Work* 8(2): 179-192.

An Explorative Study on Discourses of Adequate Validity Criterion in Qualitative Research

Kim, Kyung-Hee
(Kkottongnae Hyundo University of Social Welfare)
Kim, Gi-Duk
(Sooochunhyang University)
Park, Ji-Young
(Sangji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universal foundation on which the discourses on the validity criteria in qualitative research should be based, and further discuss in depth the scope and direction of an adequate validity criterion in qualitative research by critical examination of previous discourse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qualitative research, first of all, the concept of quality and qualitative paradigm were examined in terms of ontology and epistemology, especially focused on the works carried out by Aristotle, Kenneth and Boyd. Secondly, the earlier studies on the validity of qualitative research were critically reviewed in terms of the theoretical findings on the concept of quality and qualitative paradigm.

The major results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true content of quality is defined as the 'what-ness' or essence of things perceived by subjects, and qualitative paradigm as adequate framework for qualitative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intrinsic modes: one is the mode of awareness and the other is that of expression. Second, qualitative researchers are able to reach to the higher level of validity by considering not only the subjectivity and the originality but also the sociality in drawing a conclusion through qualitative perception. Third, the trend of previous validity discourses can be firmly summarized as the effort to overcome the effect of quantitative research and acquire the true identity for qualitative research, which is subjectivity, and as the quest to compromise the tension between subjectivity and sociality.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several research topics are suggested. For example, the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area of the expression of qualitative awareness as a way of overcome the

tension between subjectivity and publicness.

Key words: the Concept of Quality, Qualitative Paradigm, Subjectivity and Sociality, Validity of Qualitative Research

〔논문 접수일 : 11. 01. 09, 심사일 : 11. 01. 20, 게재 확정일 : 11. 03. 08〕